

파열·흔탁 심했던 광주·전남

선거사범 756명 전국 최다

당선인 중 65명 입건…잇단 고소·고발 후유증 심각

광주·전남지역의 6·2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파열·흔탁 양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선거 이후 당선인 가운데 65명이 입건되고, 고소·고발도 잇따르는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6·2 선거를 전후로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광주·전남의 선거사범은 756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의 선거사범(3618명)의 20.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광주·전남이 전국 선거사범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은 6·2 선거는 물론, 민주당 경선과정부터 파열양상이 빚어진 데다 검찰·경찰과 선관위의 불법선거 근절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지검은 같은 기간 290명을 입건해 전국 지검 본청 가운데 선거사범이 가장 많았다. 지검별 선거사범은 대구(189명), 인천(169명), 서울중앙지검(142명), 부산(114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지검의 경우 금품선거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2명 ▲불법 유인물·현수막 9명 ▲폭력선거 3명 등이었다. 또 후보자들의 호별 방문이나 관권선거, 투·개표소불법 등 ‘기타’는 142명에 달했다.

전남 또한 6·2 선거가 각종 불·탈법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지청이 선거사범 246명을 입건한 것을 비롯, 목포지청 157명, 해남지청 40명, 임영 23명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순천과 목포는 전국의 지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해 ‘부정선거 최다 지역’의 오명을 썼다. 광주·전남은 또 이번 선거에서 당

선인 65명이 입건된 가운데 전주연 전 광주 서구청장, 전완준 화순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 50명이 기소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 가운데 광주 서구청장 선거 당선인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등 48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선거사범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검·경이 조사 중인 사건이 남아있는데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공소시효인 12월 2일까지는 선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964명이 입건돼 전국 선거사범(5945명)의 16.2%를 차지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의 선거사범 규모가 5·31 선거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검 김형렬 공안부장은 “광주·전남은 6·2 선거 당시 경선과 본선을 가리지 않고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다 일부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까지 겹쳐면서 선거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체와 종교계 등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최근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등이 신의주에 전달하겠다고 신청한 쌀 203t에 대해 반출 허가를 내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에서 수혜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동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역 내 각계 단체 및 개인과 논의의 뒤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통일 쌀 203t 환송식을 연 뒤 17일 임진각을 거쳐 수해 피해지역인 신의주까지 운송할 계획이다. 이번 북한 독립기에는 광주·전남 우리계족나라회기 운동본부 등 시민단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느 회사를 뚫을까”

15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개막한 ‘2010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의 홍보부스에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있다. 이 행사는 16일까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예산 310조원 안팎

서민복지 3700억원 추가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난 308조~310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김부식 원내대표와 유흥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예산안 협의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한 참석자는 이날 “정부가 올해 예산 292조8000억원보다 5~6% 증가한 308조~310조원 범위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고했다”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이 남아 있지만 대략 310조원 안팎에서 예산안이 짜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 9000억원이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3700억원 규모의 서민복지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당

정협의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계획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재검토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신문이 “당정이 정치적 인 계산에 따라 선심성으로 투입된 지역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며 “지난 정권 때 정치권의 임김으로 세워졌거나 세우기로 한 양양·무안·속초·울진 공항, 부산·포항·광양·령택 항만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예결특위 관계자도 “보도된 것처럼 ‘정부가 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예비 태당성 검사나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집행돼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등산 단풍 11월 12일 절정



단풍 철정기 예상도

올해 가을 단풍은 평년보다 6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산은 10월 27일 단풍이 들기 시작해 11월 12일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은 10월 17일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해 10월 29일께 절정을 이루고, 남도 단풍 절경인 내장산은 10월 28일께 시작돼 11월 6일께 가장 고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 조계산은 10월 22일, 해남 두륜산은 10월 30일 시작돼 각각 11월 3일, 11월 11일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은 10월 3일, 속리산은 10월 18일, 한라산은 22일 단풍이 시작되며 절정은 각각 10월 20일, 26일, 11월 9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단풍 시작 시기는 9월 초 이후 기온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지는데, 최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도가 높아 단풍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산 전체 면적의 20% 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로 보며, 단풍이 전체의 80% 가량에 달할 때를 단풍 절정일로 판단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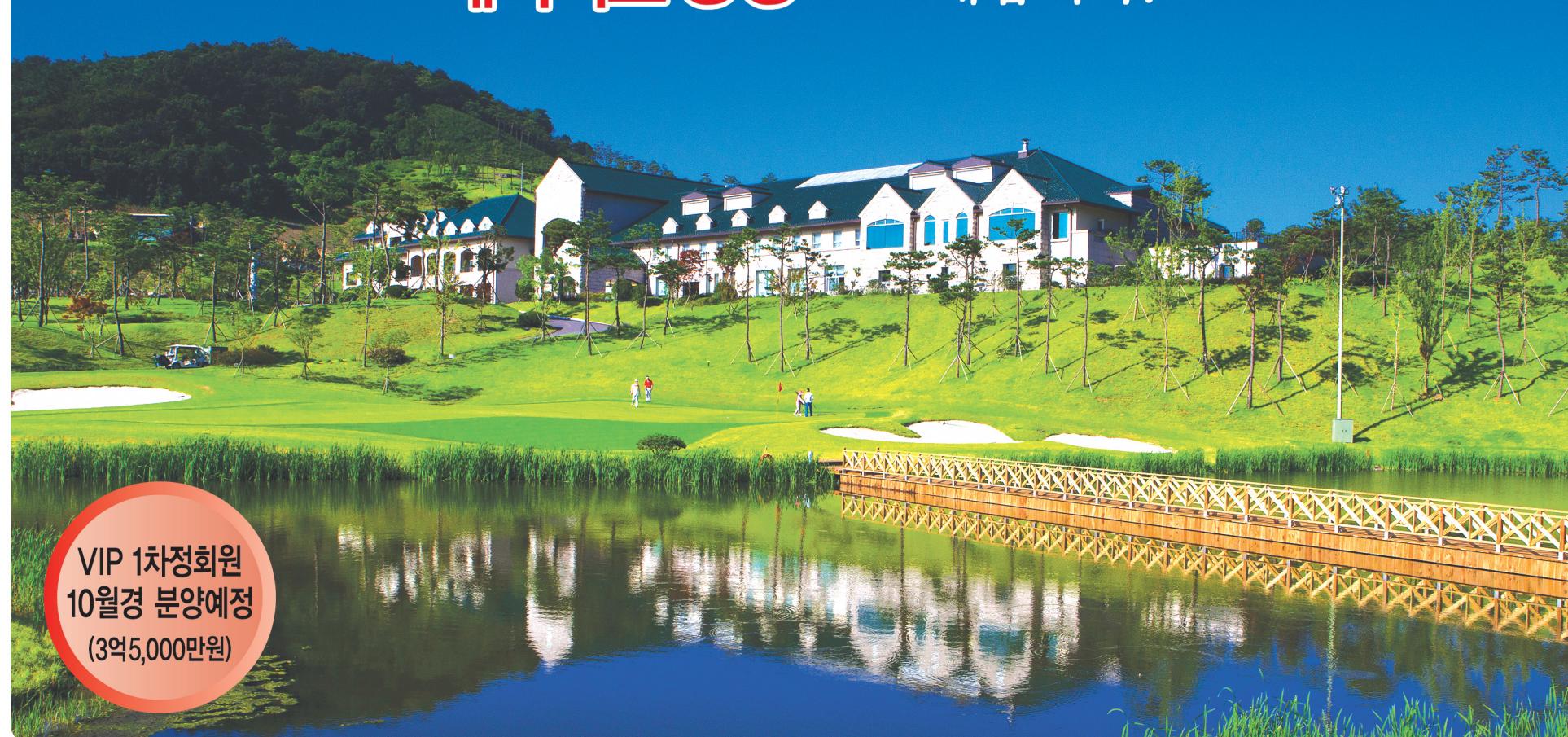
광주시·시민단체도 北지원 나서

광주·전남지역 자체체와 민간단체들이 수혜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북한에 쌀과 의료품, 생필품을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6일 사단법인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 CC로 초대합니다.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 코스규모 : 총 27홀 par108(전장 9,575m)

모집인원 : 100명

분양금액 : 1억원

정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 부킹 보장 / 골프장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중 택일
 - A형 : 지정회원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1인 준회원 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 B형 :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입회금 납부안내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 분	입회금액	계약금	잔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 광주은행 담보대출 70~100% 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